

## 관세·통관분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최창열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A Study of Research Trends in the Customs and Clearance

Chang-Youl Choi<sup>a</sup>

<sup>a</sup>Financial Information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kyeong, South Korea.

Received 31 October 2020, Revised 19 December 2020, Accepted 28 December 2020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f the papers in the field of customs clearance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of the Korean Trade Review to the August 2020 issue. The research method used mixed methods. This method us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is a research method to make use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research method. The quantitativ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average of 0.7 papers were published for the entire period, but since 2006, an average of 1.2 papers have been published, and the overall interest is increasing. Second, in the case of researchers, the proportion of joint research was slightly higher, with 43.8% of independent research and 56.2% of joint research. In particular, the ratio of 3 or more people is also increasing to 21. Third, looking at the trends by research subject, it was found that among the research fields, there were relatively more studies in the fields of FTA, country of origin, and CISG than in the fields of tariff policy, tariff system and legislation. Fourth, Domestic studies accounted for 75.2% and overseas studies 24.8%, with a high proportion of domestic studies, 13.4 articles in domestic literature, 12.2 articles overseas, and 40 articles supporting research funding.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need to secure diversity in terms of the generality and specificity of the research topic, and that research in industry-academia or public-private connection should increase, and research from the point of view of "why" rather than "how"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Keywords:** Customs, Customs Policy, Customs System, Customs Law, Multilateralism, FTA, Origin, Customs Clearance

**JEL Classifications:** F13, F15, F180

<sup>a</sup> First Author, E-mail: ccy666@skuniv.ac.kr

## I. 서론

무역(International Trade)은 국경을 넘어 국가와 국가사이에 발생하는 상품의 수출입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인류는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이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을 거치고 무역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67년 10억 달러에 머물던 무역액은 1988년 1천억 달러 넘기면서 2011년에는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 발전에 한국무역학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무역학회는 1974년 무역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이듬해인 1975년 창간호로 『한국무역』을 발간하면서 무역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는 조지워싱턴 대학의 Grub 박사를 초청하여 '세계경제와 다국적기업의 진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77년에는 학술지를 「한국무역」에서 『무역학회지』로 개칭하여 발간하면서 한국 무역의 발전을 이끌었다. 80년대는 일본과 대만 등의 학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학회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 무역학회는 매년 상호가 학술대회의 참여를 정립하는 등 활발한 학자간 교류를 통해 『무역학회지』의 세계화를 이끌어 2007년에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 Trade』를 발간함으로써 국내의 대표학술지로 자리 잡았다.

무역학회는 4,000여명의 무역학자가 무역이론과 정책, 무역실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해외지역연구, 전자무역 등 무역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산업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꾸준한 학술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 무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1975년 창간호부터 1993년 제18권까지는 연호로 발간되었으나 이후 연구 분야의 확장, 무역학의 발전 등으

로 1994년 19권부터 1996년 21권까지는 연2회 발간하고, 1997년(제22권)부터 2002년(제27권)까지는 연 4회 발간, 2003년(제28권)부터 2016년(제41권)까지는 연 5회 발간에서 2017년(제42권)부터는 연 6회 발간으로 증가되었다. 오랜 시간 양적인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학회 회원의 열정적인 연구수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양적성장을 달성하였다.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무역학은 다양한 세부 학문으로 분리되어 전자무역, 국제통상, 관세, e-비즈니스, 중재 등의 분야로 세분화 되었다. 『무역학회지』는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무역의 지속적 성장과 한국 무역학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연구 분야를 무역실무, 국제경제, 국제경영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학회의 45년 동안의 역사에서 관세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관세분야에 대한 연구는 창간호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관세분야가 관세학이라는 연구 분야로 정립되면서 무역학회지에 대한 절대적인 투고 비중이 감소하였다. 관세와 통관은 무역학의 한 분야로 융합연구의 형태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혼합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무역학회지 창간호부터 2020년 8월호까지 게재된 관세와 통관 분야의 학술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학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연구

### 1. 혼합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합적 연구방법론(mixed methods)을 이용하여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연구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정량적 방법은 논리실증주의 연구자를 중심

으로 사용되며, 정성적 연구방법은 구성주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두 방법의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혼합연구방법론은 이분적 논리에 대해 직답하지 않고 두 방법을 절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Creswell and Clark, 2007).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통일된 연구주제가 존재하고, 각 연구마다 유사한 변수들이 존재해야하지만 일반적인 학술지의 경우 이러한 유사성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역학회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각 연구의 특징을 추론하여 학술지 발전과 연구자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관세·통관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혼합적 연구 방법은 성과, 향후과제 등의 개방형 질문과 가장 많은 연구주제, 연도별 성장 추이 등의 폐쇄형 질문이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의 결합시기 및 절차, 연구 질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명적 설계를 적용했다.(송은하, 2010:247) 설명적 설계(Explanatory Design)은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정성적 분석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진행된다.

따라서, 『무역학회지』의 지난 45년을 살펴보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세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의 연구 논문을 참고하였다. 그 이유는 10주년 또는 20주년을 기점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내용이 학문과 실재간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등이 『무역학회지』의 현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호형(2017)은 『통상정보연구』를 대상으로 1999년 창간호에서부터 제18권 4호(2016년 12월)까지 18년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기간 수록된 논문은 총 1047편이었다. 게재된 논문을 학문분야로 구분하면 전자무역, 상품 및 서비스혁신, 지역통상정보,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순으로 게재되었다. 2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전공분야가 15가지가 넘으므로 통상정보연구는 다양한 연구가 게재된

고 있다. 특히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중은 19.7%이다. 통상정보연구에 그동안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던 저자는 총 46명인데 이들의 H-지수는 5.6이다. 통상정보연구의 2016년 영향력지수(IF)는 1.02이므로 통상정보연구의 무역학계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후 집계된 통상정보연구 게재 논문들의 핵심 키워드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무역, 중국, 전자무역, 한류, FTA,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전자무역, FTA, 중국세 가지 키워드가 중심이었다.

손승표(2019)는 한국관세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관세관련 무역학분야 연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정보를 이용하여 『관세학회지』의 관세 관련 무역학분야 논문의 주제어 동향을 분석하였다. 게재된 논문 546편중 50.37%가 무역학 관련 논문으로 파악되어 무역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인용결과, 주제어 분석, 키워드 Cloud 분석 등 KCI에서 제공되는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분석방법

무역학회지는 1975년부터 1993년까지는 연1회 발간되었으며 이 기간 219편이 발행되었다. 1994년~1996년에는 연 2회 발간되었으며, 1997년 시험적으로 4회 발간하였으나 투고논문의 부족으로 이듬해 1998년~1999년에는 3회 발간하였다. 2000년 4회 발간 이후 2001년~2017년까지는 총 5회 발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연 6회 발간하여 총 202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무역학회지』의 1975년 창간호부터 2020년 8월호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검색어 '관세, 통관, FTA관세, 원산지통관' 등의 검색어로 검색된 137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동향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을 이용하였다. 관세통관 분야는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학회

**Table 1.** Number of publications per year and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                              | 1975<br>~1993 | 1994<br>~1996 | 1997 | 1998<br>~1999 | 2000 | 2001<br>~2017 | 2018<br>~2020.8 |
|------------------------------|---------------|---------------|------|---------------|------|---------------|-----------------|
| Number of publications       | 1             | 2             | 4    | 3             | 4    | 5             | 5               |
|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 219           | 168           | 63   | 83            | 62   | 1,177         | 279             |

\* 2002년4회, 2005년 6회 발행 됨.  
\* 자료 : 한국연구재단 KCI. (2020.8)

**Table 2.** Number of publications per year and total number of publications

| Classification |          | Concept   | subject                             |
|----------------|----------|---|-------------------------------------|
| 07. 관세통관       |          |   |                                     |
| 0701           | 관세정책     | 수출입품의 가격을 관세로 조작·조정함으로써 국제무역을 규제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는 정책.       | 관세조작, 관세조정, 국가간 관세율 비교, 관세 효과, 관세정책 |
| 0702           | 관세제도·법   | 관세율에 관한 제도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대한 제도와 법                | 관세제도, 관세부과, 관세징수, 통관, 통관제도, 통관법     |
| 0703           | FTA와 원산지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과 상품의 국적을 판명하는 기준 | FTA, 원산지, CIGS                      |

Source: 전순환 (2014). 무역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무역학회지’ 1975~2013년 메타분석. 한국무역학회. 제7장 p.2 참조.

40주년 기년논문집에 게재된 전순환(2014)의 관세통관 분류표를 사용한다. 관세통관 분류표를 보면 관세정책, 관세제도와 법령, FTA와 원산지로 구분하고 있다(전순환, 2014).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관세통관 분류표를 이용한다. 각 분야별 정의는 <Table 2>과 같다.

### 3. 질적분석

본 연구는 창간호부터 2020년 8월호(이하 45권4호)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아 성찰적 논문을 활용하였다. 분석항목은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방법, 연구대상 지역, 참고문헌, 연구비 지원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자 수, 참고문헌은

객관적인 항목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했으며 연구자 특성,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비 지원 항목은 기존 연구를 활용하였다. 5개 분야에 대한 양적 측면의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학회지의 보편성과 특수성 반영, 무역학 정립, 이론과 실제의 접목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의와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 1) 연구자 수

『무역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연구자 특성은 크게 공동연구 여부, 연구자의 직업, 연구자의 학문분야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학문분야가 관세통관으로 한정되어 해당 변수는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Table 3. Publications by Years

| Year \ NO | 1 | 2 | 3 | 4 | 5 | 6 | Average number of papers | Year \ NO | 1 | 2 | 3 | 4 | 5 | 6 | Average number of papers |
|-----------|---|---|---|---|---|---|--------------------------|-----------|---|---|---|---|---|---|--------------------------|
| 1978      |   |   |   |   |   | 1 | 0.2                      | 2005      |   | 1 | 1 |   | 1 |   | 0.5                      |
| 1981      |   | 1 |   |   |   |   | 0.2                      | 2006      |   |   | 2 | 1 |   | 2 | 0.8                      |
| 1984      |   | 1 |   |   |   |   | 0.2                      | 2007      | 1 | 3 | 2 | 3 |   | 2 | 1.8                      |
| 1987      |   | 1 |   |   |   |   | 0.2                      | 2008      |   | 2 | 3 |   |   | 1 | 1.0                      |
| 1989      |   |   | 1 |   |   |   | 0.2                      | 2009      | 1 | 1 | 3 | 1 |   |   | 1.0                      |
| 1990      |   | 1 |   |   |   |   | 0.2                      | 2010      | 1 | 1 |   |   |   | 3 | 0.8                      |
| 1992      |   |   | 1 |   |   |   | 0.2                      | 2011      | 2 | 1 | 2 | 1 |   | 1 | 1.2                      |
| 1993      |   | 1 |   |   |   |   | 0.2                      | 2012      |   | 1 | 1 | 2 |   | 3 | 1.2                      |
| 1994      |   | 2 |   |   |   |   | 0.3                      | 2013      |   | 3 | 1 |   |   | 3 | 1.2                      |
| 1995      |   |   | 1 |   |   |   | 0.2                      | 2014      |   | 1 | 1 | 3 |   | 2 | 1.2                      |
| 1997      |   | 1 | 1 |   |   | 1 | 0.5                      | 2015      |   | 2 | 2 | 1 |   | 3 | 1.3                      |
| 1998      |   |   | 1 |   | 1 |   | 0.3                      | 2016      | 1 | 2 | 2 | 1 |   | 5 | 1.8                      |
| 1999      |   |   |   |   | 1 | 1 | 0.3                      | 2017      | 2 | 1 |   | 1 | 1 | 1 | 1.0                      |
| 2002      |   |   |   |   |   | 1 | 0.2                      | 2018      | 2 |   | 1 |   | 1 | 3 | 1.2                      |
| 2003      |   |   | 1 |   | 2 | 1 | 0.7                      | 2019      | 2 | 2 | 3 | 1 | 1 | 0 | 1.5                      |
| 2004      |   | 1 | 2 |   |   |   | 0.7                      | 2020      | 2 | 1 | 0 | 2 |   |   | 0.8                      |

\* 1978년~1997년은 각권 1호만 출판되었으며, 출판시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발행 월에 일치시킴

## 2) 연구주제

연구주제는 동일한 학제 내에도 연구목적과 연구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무역학의 경우 융합학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순환(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 3) 연구유형 및 연구방법

연구유형은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와 이들을 함께 활용한 혼합연구로 구분하였다.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목적별, 주제별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분류기준을 채택하였다.

## 4)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에 참고문헌의 양과 질적 수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에 활용된

참고문헌 수, 국내문헌과 해외문헌 비중을 수량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의 유형이 학술지, 학술대회발표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정부문서, 기업자료,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 5) 연구비 지원

연구자금 지원 유무가 기록된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로 구분하였다. 과거 자료의 경우 기록이 부실한 반면 최신 자료의 경우 비교적 기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재의 정확성 보다는 기재여부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Ⅲ. 정량적 연구

### 1. 연구도 출판 현황

1975년 6월 발간된 창간호 제1권부터 2020

**Table 4.** The timing of the emergence of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customs

|       | 1978년                            | 2003년                            | 2006년                            | 2015년                            | 2020년 |
|-------|----------------------------------|----------------------------------|----------------------------------|----------------------------------|-------|
| 관세분야  | [Timeline bar from 1978 to 2020] |                                  |                                  |                                  |       |
| 통관분야  |                                  | [Timeline bar from 2003 to 2020] |                                  |                                  |       |
| FTA분야 |                                  |                                  | [Timeline bar from 2006 to 2020] |                                  |       |
| 원산지분야 |                                  |                                  |                                  | [Timeline bar from 2015 to 2020] |       |

\* 1978년~1997년은 각권 1호만 출판되었으며, 출판시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발행 월에 일치시킴

**Table 5.** Customs Clearance paper analysis by period

| 분류             | 1980년<br>이전 | 1981년<br>~1990년 | 1991년~<br>2000년 | 2001년<br>~2010년 | 2011년<br>~2013년 | 2014년<br>~2020년* | 계  |
|----------------|-------------|-----------------|-----------------|-----------------|-----------------|------------------|----|
| 0701. 관세정책     | 1           | 1               |                 |                 | 1               | 2                | 4  |
| 0702. 관세제도·법령  |             | 4               | 2               | 20              | 5               | 4                | 34 |
| 0703. FTA와 원산지 |             |                 |                 | 7               | 5               | 37               | 49 |
| 계              | 1           | 4               | 2               | 27              | 11              | 43               | 87 |

Source: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게재논문을 기반으로 각 검색어를 기준으로 정리

\* 2020년은 8월까지의 자료임.

년 8월호 제45권까지 게재된 2021편 가운데 관세·통관분야의 논문은 총 137편을 대상으로 기간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관련 연구가 게재되고 있으며 1년에 평균 2편 내외의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6호까지 발행하는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 0.7편이 발행되는 추세이다.

분야별 연구가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관세(관세정책, 관세제도와 법령 등)의 범위는 1978년 이춘삼의 “무역의 확대와 관세정책의 방향”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 48편이 연구되었다. 통관 분야는 2003년 박남규, 신승만의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통관지체요인에 관한 연구”가 소개되면서 이후 통관 절차에 대한 연구가 6편 진행되었다. FTA와 관련된 분야는 2006년 박상길, 윤기관, 정인교의 “한·중·일과 미국간 FTA 체결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총 76편이 연구되었다. 원산지와 관련된 연구는 2015년 발표된 최창범의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 검증성과 간의 관

계”를 시작으로 20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분야별 연구가 시작된 시점을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이 고려된 연구가 많았다. 1980년대는 한국 무역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면 1990년대에는 수출성과, 수출제도, 신용장 등의 연구에 포함되는 연구가 많았다.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무역관계와 국제화, 개도국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관세분야에 대한 연구 흐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FTA와 원산지 분야를 포함하여 제도, 문화, 특징, 관계 등을 연구함으로써 관세분야에 대한 주도적이고 보완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관세통과분야의 논문을 정리한 결과 총 43편이 게재되었다. 기간별 연구동향은 분야별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며, 연구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기간별로 80년대 이전에는 관세정책 1편, 80년대에는 관세정책 1편, 관세제도·법령 4편, 90년대 관세제도·법령 2편, 2000년대는 관세제

1) 각 편수는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키워드가 중복된 경우 중복 계산되었음.

Fig. 1. Current Status of Joint Research and Job Type of Single Resear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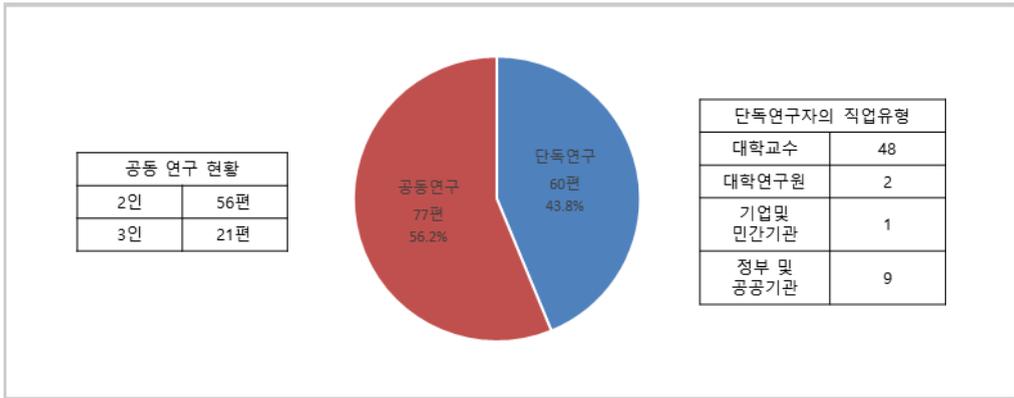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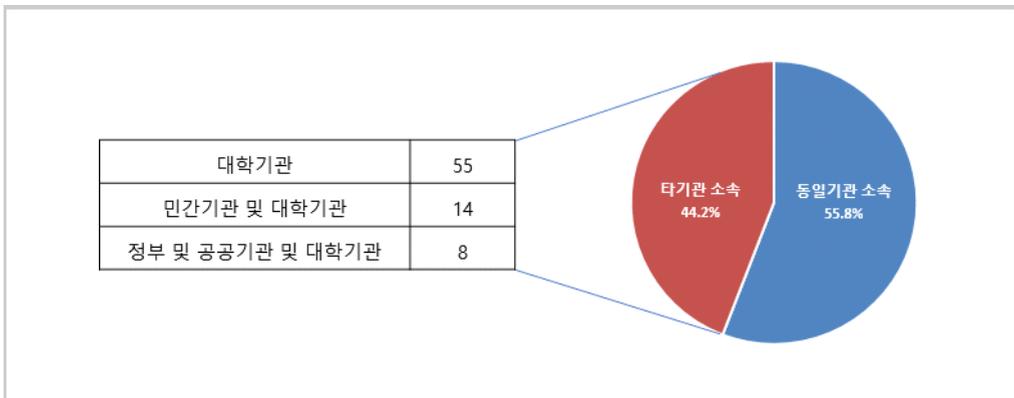


Fig. 2. Current status of participants in joint research



도·법령 20편, FTA와 원산지 7편, 2011년~2013년까지는 관세정책 1편, 관세제도·법령 5편, FTA와 원산지 5편, 2014년 이후 관세정책 2편, 관세제도·법령 4편, FTA와 원산지 37편으로 나타났다. 무역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발표된 논문의 편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구의 연결효과(linkage effect)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정책에서 관세제도·법령으로 다시 FTA와 원산지로 연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 2. 연구자 특성

『무역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자의 특성을 연

구자 수와 연구자 직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관세통관 분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235명이다.<sup>2)</sup> 단독연구의 비중은 43.8%(60편), 공동연구의 비중은 56.2%(77편)으로 공동연구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공동연구가 많았다는 것은 『무역학회지』가 복합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간 많은 교류를 통해 상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학술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소속을 통해 교류현황을 분석하였다. 단독연구인 경우 대학교수(80%), 연구원(3.3%), 기업 및 민간기관(1.7%), 정부 및 공공

2) 참여 연구자의 수는 한명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경우 복수로 코딩하였다.

**Table 6.**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in the field of customs clearance (2011~2020.8)

| 주제어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관세        | 11   | 2    | 4    | 7    | 7    | 9    | 3    | 7    | 6    | 4    |
| 관세정책      | 1    | 0    | 0    | 1    | 1    | 1    | 1    | 0    | 0    | 1    |
| 관세제도 · 법령 | 4    | 2    | 4    | 1    | 3    | 2    | 5    | 4    | 2    | 1    |
| FTA       | 43   | 52   | 54   | 48   | 49   | 47   | 37   | 41   | 24   | 13   |
| 원산지       | 7    | 10   | 8    | 3    | 9    | 5    | 4    | 1    | 2    | 2    |
| CISG      | 20   | 13   | 13   | 15   | 7    | 12   | 11   | 8    | 18   | 4    |

Source: <www.kci.go.kr> (Standard : 2020.8. Search : 2020.9.9.)

\* 검색기준 : 논문 제목에 검색주제어가 들어간 경우임.

**Table 7.** Number of Publications by Field of Customs Clearance (2011~2020.8)

|          | 무역학회지 | 관세학회지 | 무역연구 | 통상정보연구 |
|----------|-------|-------|------|--------|
| 관세정책     | 0     | 9     | 4    | 1      |
| 관세제도 · 법 | 67    | 173   | 89   | 118    |
| FTA와 원산지 | 64    | 137   | 80   | 69     |
| 통관       | 6     | 44    | 7    | 1      |
| 합        | 134   | 363   | 180  | 189    |

Source: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기관별 연구동향, 2020.9. 기준

\* 검색은 논문 제목에 해당 단어가 들어간 경우임.

기관(15.0%)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의 경우 동일기관 소속간 연구가 55.8%, 타기관 소속간 연구가 44.2%로 동일기관 소속자간 연구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연구자의 전공은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등 경상계열 또는 사회과학 계열이 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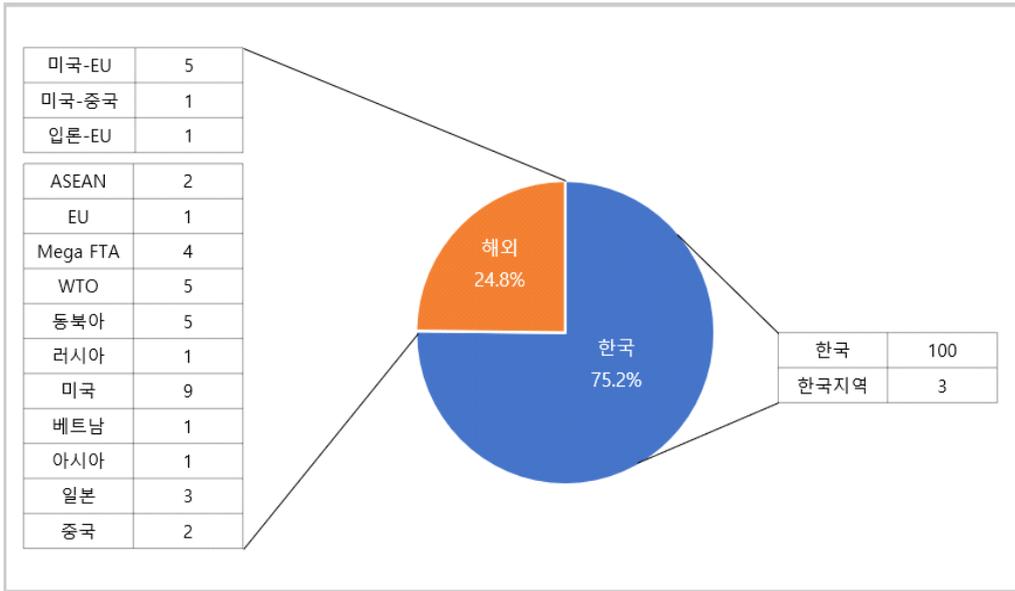
### 3. 주제별 연구동향

사회과학분야 무역학 관련 학술지는 19종이다. 이중 관세통관 분야의 논문이 게재된 대표 학술지는 무역학회지 이외에 관세학회지,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 무역연구, 국제통상연구, 무역보험연구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게재편수의 경우 19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야별 게재편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관세학회지, 통상정보연구, 무역연구를 대상

으로 관세통관 분야의 4가지 영역에 대해 2011년부터 게재편수를 정리하였다.

연구 분야 가운데 관세정책과 관세제도 및 법령 분야의 연구보다는 FTA와 원산지, CISG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와 관세정책, 관세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특히 관세제도와 법령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해당 영역의 연구가 관세정책과 FTA라는 키워드에 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학회지별 특징은 관세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2020년 8월까지의 결과를 보면 무역학회지의 경우 '관세정책'을 제목으로 하는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학회지의 경우도 관세정책은 9편(2.5%)에 그치면서 관세제도·법

**Fig. 3. Number of Publications by Year in the Field of Customs Clearance (2011~2020.8)**

47.7%, FTA와 원산지 37.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지역별 연구동향

무역이라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이 한국과 그 대상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관련된 지역과의 관계가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관세 통관분야의 연구대상 지역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는 관세 통관분야 논문 137편 가운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3편 (75.2%), 해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4편 (24.8%)로 국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해외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이 9편, 동북아와 WTO 관련 연구가 5편, Mega FTA 관련 연구가 4편 등 비교적 다양한 지역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3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동북아, WTO, Mega FTA, 러시아<sup>3)</sup> 등 15편의 연구

가 진행되었다.

한국을 제외한 해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주로 미국-EU간 연구가 5편, 미국-중국 연구가 1편 일본-EU 연구가 1편 등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연구의 지역적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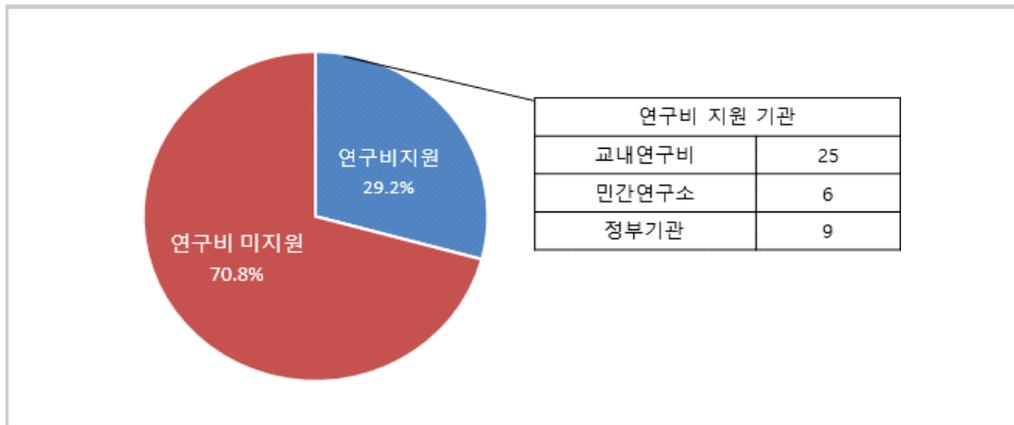
#### 5. 참고문헌 분석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에 인터넷 자료와 각종 법, 국제 규정 등의 자료는 제외하고 학술지, 학위논문, 정부 및 공공기관 문헌 등의 활용을 분석하였다. 언어유형별 국내문헌은 13.4편, 해외문헌은 12.2편으로 양적 구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7편 가운데 평균 24.2편의 참고문헌이 활용되었다. 초기에는 이론 중심의 연구가 인용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무적 내용의 학술지 연구가 많이 인용되었다.

3)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경제통합체의 관세

행정시스템 대한 연구로서 지역적 분류에서 유일하게 제3지역에 대한 연구임

Fig. 4. Research Fund Support Status



## 6. 연구비지원 동향

연구비 지원논문은 137편 가운데 40편으로 29.2%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기관은 교내연구비,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동재단 등을 통해 지원되었다. 한국관세학회가 있어 대조적 비교가 필요하겠지만, 한국무역학회가 무역학 연구의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은 기관에서 관세통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비 지원 기관을 보면 대학의 교내연구비 논문이 25편, 민간연구기관 6편,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한 정부 기관이 9편으로 특히 민간연구기관의 관세통관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교내연구비의 경우 연구자의 건의에 의해 연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137편의 논문가운데 기관지원 논문은 15편에 불과하다.

## 7. 통관분야 연구 키워드 동향

관세통관 분야의 연구 동향을 키워드를 기준을 살펴보면 <Table 8>와 같다. 관세정책 분야는 면세점, 관세평가, FTA, 전자상거래 원산지 등과 관련된 검색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관세제도·법 분야에서는 관세, 통관, 징벌적 추징, 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관세평가 등의 관련 용어가 많았다. FTA 관련 검색어는 원산지

규정, 중력모형, 원산지 검증 등의 연관어가 많았으며, 원산지 검색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검증, 구매의도 등이 높았다.

검색 FTA와 원산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FTA와 관련된 원산지는 중력모형의 비중이 높았으며, 원산지의 경우 FTA 원산지에 대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정책에 대한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관세정책의 내용이 관세제도나 법 분야에 포함되었거나, 관세정책의 연구 내용이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관련 분야의 보완적 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IV. 대표연구 분석

### 1. 관세정책 분야

관세정책은 관세의 부과 정도와 그 구조로서 관세율정책, 보세정책, 감면세 정책, 분할납부정책, 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연구기간 동안 총 4편이 게재되었다. 관세통관 분야에서도 연구의 관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 현황은 <Table 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논문에 대한 대략적인 연구개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Table 8. Keyword Ranking by Customs Clearance Field (2011~2020.8)**

| 순위  | 검색어 | 관세정책   | 관세제도·법  | FTA                                    | 원산지             |
|-----|-----|--|---|--|-----------------|
| 1순위 |     | 면세점  | 관세, 통관  | 자유무역협정                                 | FTA             |
| 2순위 |     | 관세평가,<br>자유무역협정  | 징벌적 추징,<br>공동연대추징,<br>가산세, 규제,<br>실질과세원칙,<br>베트남, 내국세 | 원산지규정,<br>중력모형                         | 원산지검증           |
| 3순위 |     | 전자상거래,<br>원산지,<br>실질과세원칙,<br>가산세, 관세법,<br>심판청구,<br>부가가치세,<br>경쟁정책,<br>세계무역기구 | 신의성실의 원칙,<br>관세행정,<br>관세평가,<br>품목분류 등                 | 원산지검증,<br>원산지, 중소기업,<br>자유무역협정,<br>WTO | 자유무역협정,<br>구매의도 |

Source: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키워드별 연구동향, 2020.9. 기준

\* 검색어는 검색어를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함.

**Table 9. Representative thesis in the field of customs policy (2011~2020.8)**

| 발간년도 | 발간월 | 권  | 호 | 논문제목                         | 대표저자    |
|------|-----|----|---|------------------------------|---------|
| 1978 | 11  | 3  | 1 | 무역의 확대와 관세 정책의 방향            | 이춘삼     |
| 1987 | 3   | 12 | 1 |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 고용부     |
| 2011 | 4   | 36 | 2 | ASEAN 주요 국가의 통관중심적 전자무역 동향분석 | 박우, 박명서 |
| 2018 | 12  | 43 | 6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활용과시사점     | 윤성욱     |

\* 상기 구분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구분하였음.

이춘삼(1978)은 무역의 확대와 관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내외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관세율 정책의 방향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재면(1993)은 선진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추이와 정책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당시 GATT의 정책적 노력과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정재완 (2002)은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WTO협정상 비관세적 수단에 의한 무역 개선을 위해 한국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균등관세율 체계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박우, 박명섭(2013)은 세관특수구역에 있어서 중국의 보세항구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보세항구의 개방수준이 높고 다양한 우대정책을 가진 특수구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의 정책상, 제도상 문제점을 제시하여 한국 무역업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다.

## 2. 관세제도 및 법률 연구 동향

무역정책이 갖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무역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분야를 관세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제도는 관세와 비관세와 관련된 내용과 관세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영동 (1984)은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지원 정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초로 제25차 관세감면제도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관세감면제도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차등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과세지원을 확대를 필요하지만 면세품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춘삼(1998)은 관세 환급 행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기존의 관세 환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1세기 관세 환급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세 환급제도는 한국경제의 발전에 있어 수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역규모의 확대로 인해 환급금 수령기간, 환급소요비용, 관련 서류의 복잡성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신고납부제도의 시행, 기업의 자율관리 소요량제도 도입, 전산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1999년 연구로 이어져 관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세요건, 관세의 부과 징수, 불복절차, 관세감면, 국제관세협력, 보세 운송 및 보세구역, 통관절차, 관세율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검토를 하였다. 연구결과 관세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추세에 맞춰 관세법을 수요자 중심의 법률체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완(2002)은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인 할당관세, 조정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의 운용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탄력관세 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관세라는 무역정책 수단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그중 탄력관세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규, 신승만 (2003)은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통관지체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의 통관 절차가 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지적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한 무역원활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WTO 출범과 함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획기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가간 서로 다른 통관절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관세행정제도가 선진화되었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관세 행정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세관해정의 복잡성, 보세장치장 관리, 통관자동화 시스템 도입, 수입화물검사의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대안으로 수입통관절차 간소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김세영, 박영기(2003)는 전자 전송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던 재화가 디지털변환이 가능하여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전송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과세가 누락되어 과세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상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추적하여 과세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자 전송물에 과세를 함에 있어서 수입의 정의, 품목분류 문제, 그리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기 전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전순환, 2013).

오웅탁, 김진섭(2003)은 무역원활화와 사회 안전의 조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9.11테러 통관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투명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물품의 신속통관, 국경이동의 원활화 등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으로 정보의 공유, 전문인력 양성, 통관절차의 감시 및 장비의 첨단화, 국제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송선욱 (2004)은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 교통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

세 환급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양국의 관세 환급규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관세 환급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세 환급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의 범위를 환급대상범위, 환급방법과 환급금의 지급 환급허용 및 환급청구기한 등으로 한정하고 서술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 환급기한을 확대하고 간이징액환급의 제한을 완화하여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정교토협약을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상현, 최준호 (2005)는 관세행정에서 기업자율심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 관세행정에 도입된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소개하고 법적적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운영성과와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자율심사제도는 사전 심사정보 제공의 부정확성, 자율심사일정의 장기성, 범규준수제도에 대한 높은 배점 책정, 대기업중심의 자율심사업체 선정, 건별심사의 납세자 참여방법 미장치, 관세사를 활용한 자율심사의 미비성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업자율심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체 대한 사전 심사정보 제공의 정확성, 자율심사일정의 신속적인 운영, 범규 준수도에 대한 배점의 축소, 중소기업의 자율심사업체 선정 확대, 건별 납세자에 대한 자율점검제 도입, 관세사의 적극적인 심사참여 규정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재완 (2007)은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성격을 규명하고, 구매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구매수수료를 명확히 정의하고, 용역을 통해 발생한 구매수수료에 대한 관세평가, 구매수수료로 인한 마찰 등을 판례를 통해 그 예방책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봉, 천홍욱 (2012)은 AEO제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등 무역 당사자간 세관당국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가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성,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AEO제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AEO 제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공급체인의 위험관리 이론에 근거하여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김재식 (2012)은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의도 결정요인이라는 연구를 통해 계획적 행동이론에 기초한 여행자의 휴대품 성실신고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 방법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휴대품 성실신고 행동의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변수가 실제 성실신고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해외여행자는 면세기준을 인지하고 기준 초과 물품 구입시 성실 신고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FTA 및 원산지 분야 연구 동향

FTA와 원산지 등과 관련된 연구는 2006년 박상길, 윤기관, 정인교의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관세통관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중·일과 미국간 FTA 체결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북아 3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한국 무역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적 효과는 GTAP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RCA지수를 통한 국가간 경쟁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한국은 전기전자 산업, 중국은 섬유, 철강, 금속, 기계류 산업에서, 일본은 화공품,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 우위가 있었다. FTA시나리오별로 한미 FTA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 및 수입은 증가하지만 대중국, 대일본 수출을 감소하고, 한중일미 FTA의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거대 경제권간 FTA동향, 무역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야하며,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강화되는 점, 한국의 제1수출시장이 한미 FTA 체결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2009)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적 거리 등에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FTA가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가 그 효과를 프로비트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의 FTA체결은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주장하고 한국은 제도 개선,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방법, 자유무역 촉진법 제정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중국은 관세장벽 철폐, 농업문제에 대한 해결, 서비스무역의 개방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진섭, 이정세 (2009)은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중국 경제의 급성장, 한중 교역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양국의 교역패턴이 지닌 특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중 교역구조상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기업이 대 중국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은 양적확대 위주의 외자유치 등의 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경합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의 무역창출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한·EU FTA 등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경애, 이해춘 (2010)은 퍼지 의사결정 방법론을 이용한 한미·한중 FTA가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비교라는 연구를 통해 한미 FTA,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Fuzzy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생산 및 고용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미FTA의 산업생산 효과는 2.56으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견해보다는 그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자동차, 섬유는 유리하며, 전기전자, 기계철강 화학은 비교적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계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았으며, 법률, 회계, 의료 등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효과는 퍼지점수가 2.55로 나타나면서 한미 FTA 체결이 고용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 그룹은 생산효과 고용효과 모두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고용이 매우 증가하는 산업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대체로 증가하는 산업은 전기, 전자, 섬유, 의류, 기계, 철강, 화학 산업이며 보통인 산업은 금융, 의료, 일반기계, 교육 산업이었으며, 매우 감소하는 산업은 농림어업, 축산업이었다.

이용근, 안창달 (2011)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무역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엄격성지수를 도출하였다. 엄격성지수는 원산지규정의 난이도를 계량화한 지표이며 엄격성지수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무역창출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화학제품, 의류직물, 전기기계, 운송기기, 정밀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군에서 엄격성지수는 교역량에 부(-)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지수가 높다는 것은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한국의 원산지 규정이 교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란 (2014)은 TPP(한·일 FTA)가 한·일 자동차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메가FTA와 국가간 교역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한국은 TPP 참가국 가운데 10개 국가 FTA가 체결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TPP에 참여시 한일간 자동차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 시장의 특수성은 한일FTA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협상참여시 명확한 FTA 입장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응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를 전제로 일본과의 FTA를 검토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EU FTA 논의를 통해 자동차 세이프가드와 비관세장벽 개선 담

보 장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FTA에서는 사전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한일 FTA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FTA 추진과 더불어 산업통상정책과의 연계성 확대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복영, 오근엽 (2015)은 한국 FTA 협정의 환경 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이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이 맺은 FTA중 발효된 11개 협정에 나타난 환경 분야 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경제블록 관점에서 EC 및 NAFTA를 기반으로 하는 한EU와 한미FTA가 가장 선진적인 환경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지역과의 FTA에서는 환경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다. 둘째, 개도국 보다는 선진국이 다양한 환경수단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변화는 개도국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비판세장벽에서 필수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리적 인접성은 월경성 이동오염물질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 FTA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룰 개연성이 매우 높다. 향후 한중일 FTA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역 환경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측하였다. 넷째, 체결시기 측면에서 한EU 이후 서문, 조항, 장, 부속서 등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내용측면에서도 환경관련 법의 적용과 집행 등에 대한 수단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11개의 협정을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지만 협정문 자체의 추이와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상황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나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란, 유정호, 임병호 (2019)는 FTA 원산지 누적의 경제적 효과를 베트남 섬유산업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학회지』 137편의 관세통관 분야의 논문 중 유일하게 베트남 지역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관련 분야를 연구한 논문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 V. 결론

1975년 『무역학회지』의 창간호에는 국제통화과동과 오일쇼크로 인해 국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관계와 무역업계가 학술과 실무의 양면에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학회의 창립을 설명하고 있다. 창립사의 내용은 첫째, 연구대상으로서 무역이 가진 보편성, 특수성을 연구하여 환경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국내 학계와 업계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학문적 우수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간호부터 45권 4호까지 관세·통관분야의 양적, 질적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혼합적 연구방법론(mixed methods)를 사용하였다. 혼합적 연구방법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연구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다. Creswell and Clark (2007)은 연구방법론은 지식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철학적 접근이 사용된다. 정량적 방법은 논리실증주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며 정성적 연구방법은 구성주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두 방법의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혼합연구방법론은 이분적 논리에 대해 직답하지 않고 두 방법을 절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질적 연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으로서 무역이 가진 보편성,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관세통관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본다. 『무역학회지』는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주제를 다룰 수 있다. 무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관세통관분야도 이러한 무역학의 기본적 특성이 반영되어 관세정책, 관세제도, 관세법, 관세응용 분야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연구가 가능하다.

관세통관 분야에 대한 연구가 『무역학회지』의 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분명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연구주체의 비중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연구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연구의 주기가 길다는 점 등은 하드웨어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관세분야만 연구를 한다면 그 자체로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도적 무역 관련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소프트웨어적 관점이 누락되어 이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즉, 보편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관세통관 분야를 연구하면서 연구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구주체의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성의 찾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두 번째 목적인 학계와 업계의 공동연구를 통해 학문적 우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동연구의 비중이 77편 (56.2%)이었다는 것은 다소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동안 관, 산, 학, 연의 정보 교환의 장이 만들어져 다양성, 목적성에 부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공동연구 가운데 동일기관 소속이 55.8%이며, 타기관 소속의 경우도 대학 소속이 55편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산학, 관학 등의 연구보다는 학자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질적 공동연구를 위한 ‘실천적 이론’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의 대부분이 “Why?”라는 연구주체보다는 “How?”나 “What?” 등의 연구주체가 많다는 것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은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실체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즉흥적인 답, 현실 참조의 결론이 도출되다보면 논의의 핵심이 사라져 이론의 필요성을 왜곡하거나 폐기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많은 관세통관 분야의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 시사점, 성찰을 통한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연도별 게재논문은 평균 0.7편이 발행되었다. 2006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평균

1.2편의 논문이 게재 되어 연구기간 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해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호황과 911테러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관세정책분야는 창간호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통관분야는 2000년대 초반부터, FTA와 원산지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자의 경우 단독연구가 43.8%, 공동연구가 56.2%로 공동연구의 비중이 조금 높았다. 특히 3인 이상의 비율도 21편으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다. 공동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대학기관 소속이 많았으며, 민간기관과 대학과의 협업 연구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셋째, 연구주체별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 분야 가운데 관세정책과 관세제도 및 법령 분야의 연구보다는 FTA와 원산지, CISG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와 관세정책, 관세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유관학술지와 대비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국내 연구가 75.2%, 해외 연구가 24.8%로 국내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에 미칠 영향, 효과 등에 연구였으며, 해외 연구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다양한 참고문헌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내문헌은 13.4편, 해외문헌은 12.2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논문의 비중도 40편이었으며 교내연구비,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동재단 등을 통해 지원되었다.

창간호부터 45권4호까지 관세통관 분야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는 『무역학회지』의 미래를 설계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학술지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이어갔으며, 다양한 유관기관의 설립에 기여한 것도 업적중 하나이다. 『무역학회지』는 그동안의 실천적 이론을 바탕으로 학회 연구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역실무, 국제경영, 국제경제의 포괄적 연구 분야에서 연구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 연구 분야를 정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 분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h, Kyung-Ae and Hae-Chun Rhee (2010), "The Effects of Korea-US and Korea-China FTA for Industrial Growth and Employment in Korea: Using the Fuzzy Set theory", *Korea Trade Review*, 35(2), 49-81.
- Cho, Jung-Ran (2014),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TPP(Korea-Japan FTA) on the Trade of Automobile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Trade Review*, 39(4), 221-241.
- Cho, Jung-Ran, Jeong-Ho Yoo and Byeong-Ho Lim (2019) "Economic Effects of FTA Cumulation Based on Value-Added Exports of Vietnam Textile Industry", *Korea Trade Review*, 44(1), 207-220.
- Chung, Jae-Wan (2002), "Policy Implications on the Implementations of Flexible Tariff System of Korea", *Korea Trade Review*, 27(4), 241-261.
- Chung, Jae-Wan (2007), "Study on Customs Valuation of Buying Commissions Paid by Importers", *Korea Trade Review*, 32(2), 287-309.
- Creswell, J. W. and V. L. P. Clark (201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SAGE.
- Han, Sang-Hyun and Jun-Ho Choi (2005). "A Study on the Oper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rading Company Self-Assessment in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 *Korea Trade Review*, 30(5), 227-246.
- Jeon, Soon-Hwan (2014),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rade Studies-Journal of Trade 1975~2013 Meta Analysis",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40th Anniversary Collection*, Ch7.
- Jung, Bok-Young and Keun-Yeob Oh (2015), "Environmental Issues and Negotiation Strategies in Korea's Foreign Trade Agreements", *Korea Trade Review*, 40(4), 311-330.
- Kim, Chang-Bong and Hong-Uk Chun (2012),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Activation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of Korean Export-Import Company", *Korea Trade Review*, 37(1), 203-228.
- Kim, Jai-Sik (2013), "Determinants of Intentions to Comply with Customs Tax for Passenger Baggage : From the Perspective of TPB", *Korea Trade Review*, 38(2), 133-157.
- Kim, Jin-Sup and Jung-Sae Lee (2009), "Effect of Tariff Reduction on the Trade Pattern Between Korea and China: An Empirical Analysis", *Korea Trade Review*, 34(3), 279-306.
- Kim, Sae-Young and Byung-Min Ahn and Myoung Shik Choi (2009), "Success Conditions and Economic Effects O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Trade Review*, 34(1), 1-28.
- Kim, Sae-Young and Young-Gie Park (2003), "A Study on Device of Tariff Imposition in Electronic Transmission Transaction", *Korea Trade Review*, 28(4), 159-184.
- Kwon, Young-Dong (1984), "Policy Direction of Customs Exemption or Reduction System for Industrial Incentives in Korea", *Korea Trade Review*, 9, 205-222.
- Lee, Choon Sam (1998), "Development of the Korea Customs Drawback Administration". *Korea Trade Review*, 23(1), 247-264.
- Lee, Hoh-yung (2017),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9(2), 259-273.
- Lee, Jae-Myun and Il-Chung Kim (1993),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NTBs of Advanced Countries to Korea". *Korea Trade Review*, 18, 155-182.
- Lee, Yong-Keun and Chang-Dall Ahn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Restrictiveness of

- Rule of Origin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on Trading Volume: Focusing Korea's Main Trading Goods”, *Korea Trade Review*, 36(5), 171-196.
- Oh, Woong-Tak and Jin-Sup Kim (2003),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Trade Facilitation and Social Security”, *Korea Trade Review*, 28(5), 215-238.
- Park, Nam-Kyu and Seung-Man Shin (2003), “A Study on Factors for Delaying Imported Cargo in Korean Clearance Procedure”, *Korea Trade Review*, 28(4), 527-548.
- Park, Sang-Gil, Ki-Kwan Yoon and In-Kyo Cheong (2006). “An Effect of US' Bilateral FTA Conclusions with Korea, China and Japan on Trade Structure”, *Korea Trade Review*, 31(4), 53-77.
- Sohn, Sung-pyo (2020), “A Research Progress and Meta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Area on the Customs Study”,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21(1), 3-17.
- Song, Eun-Ha (2010), “Contents Analysis of 「Seoul Studies」 for 10 Years (2000~2009)”, *Seoul Studies*, 11(1), 245-261.
- Song, Seon-Uk (2004), “A Study on the Suggestions of Korea Customs Audit System and Main Substances of Customs Control in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and Audit System in U.S.A.”, *Korea Trade Review*, 29(3), 187-208.
- Woo, Park and Myong-Sop Pak (2013), “A Study on Policies of China’s Free Trade Port Areas belongs to Customs Special Supervision Areas”, *Korea Trade Review*, 38(3), 169-191.

## Appendix.

Table A. List of Tariff · Customs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 Trade Review

Period : from 1975 to August 2020, By Year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무역의 확대와 관세정책의 방향                               | 이춘삼              | 6(1)     | 1978      | 59-85   |
| 관세환급제의 개선방안                                    | 최일환              | 9(1)     | 1981      | 78-98   |
| 산업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 권영동              | 12(1)    | 1984      | 205-222 |
| 우리나라 관세율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 고용부              | 14(1)    | 1987      | 233-266 |
| 실효보호를 측정에 의한 관세률조정에 관한 연구                      | 유경득              | 15(1)    | 1989      | 173-221 |
| 미국·EC의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연구                           | 이춘삼              | 17(1)    | 1990      | 53-80   |
| 차별화된 슈타겔버그 그 북점시장하에서의 관세와 쿼타 및 자율수출규제          | 김기수              | 18(1)    | 1992      | 259-268 |
| 선진제국의 대한민국 비관세장벽의 추이와 정책과제                     | 이재면, 김일중         | 19(1)    | 1993      | 155-182 |
| 일본의 관세정책에 관한 실증적분석                             | 이춘삼              | 19(1)    | 1994      | 317-350 |
|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실효보호관세율에 관한 연구                      | 서근태, 최봉호         | 20(1)    | 1994      | 1-22    |
| 반덤핑관세분야에 대한 UR협상결과의 분석                         | 이춘삼              | 22(1)    | 1995      | 463-486 |
|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br>관한 실증분석      | 박형래              | 22(2)    | 1997      | 57-81   |
| WTO체제하에서의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개편방향                     | 이춘삼              | 22(4)    | 1997      | 147-172 |
| 불완전경쟁하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선택에 관한 정책<br>적 시사점         | 강은중              | 23(1)    | 1997      | 123-136 |
| 관세환급행정의 발전방향                                   | 이춘삼              | 23(2)    | 1998      | 247-264 |
| 재정수입측면의 적정관세부담률                                | 김중근              | 24(3)    | 1998      | 1-22    |
| 관세법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춘삼              | 24(2)    | 1999      | 347-368 |
| 미국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비교연구                        | 여택동,<br>전정기, 장동식 | 27(4)    | 1999      | 257-279 |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 정재완              | 28(3)    | 2002      | 241-261 |
| 관세수준 결정과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이종민              | 28(4)    | 2003      | 351-374 |
| 균등관세율체계의 운용성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br>안             | 송희영, 박상태         | 28(5)    | 2003      | 33-57   |
| 전자 전송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방안에 관한 연<br>구            | 김세영, 박영기         | 28(4)    | 2003      | 159-184 |
|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통관지체요인에 관한 연구                       | 박남규, 신승만         | 29(2)    | 2003      | 527-548 |
| USITC의 대 아시아 개도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의사결정<br>과정에 관한 연구 | 박형래              | 29(3)    | 2004      | 53-80   |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 송선욱           | 29(3)    | 2004      | 187-208 |
| WTO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 양준석           | 29(4)    | 2004      | 59-80   |
| HS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정재완           | 30(2)    | 2004      | 51-69   |
| DDA 비농산물분야의 협상방식이 국제 관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낙균           | 30(3)    | 2005      | 5-22    |
| 미국관세환급제도와 개정교토협약 환급관련규정의 고찰을 통한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     | 송선욱           | 30(5)    | 2005      | 217-238 |
| 관세행정에서 기업자율심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상현, 최준호      | 31(3)    | 2005      | 227-246 |
|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효율화방안                              | 강홍중           | 31(3)    | 2006      | 109-130 |
| 무역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 수입시의 관세평가에 대한 고찰                     | 정재완           | 31(5)    | 2006      | 131-150 |
| FTA체결예상국가들의 기업유리 및 문화적 특성                           | 박노경           | 31(5)    | 2006      | 89-109  |
| 포페이팅(Forfeiting)금융비용의 관세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제현, 구종순      | 31(4)    | 2006      | 305-331 |
| 한·중·일과 미국간 FTA 체결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상길, 윤기관, 정인교 | 32(2)    | 2006      | 53-77   |
|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 제도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 이명구           | 32(2)    | 2007      | 357-376 |
| 수입자가 지불하는 구매수수료의 관세평가에 대한 연구                        | 정재완           | 32(3)    | 2007      | 287-309 |
|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 손일태           | 32(5)    | 2007      | 269-292 |
|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 이제현, 김연숙      | 32(1)    | 2007      | 339-360 |
| 통관단일창구의 성공요인 연구                                     | 김영춘, 김정숙      | 32(3)    | 2007      | 333-360 |
| 국제VMI의 관세법령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상현, 김태인      | 32(2)    | 2007      | 45-64   |
| CGE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의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유태환, 배성일      | 32(4)    | 2007      | 421-441 |
| 무신고수입 사례분석을 통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적용여부에 관한 법제 연구            | 강홍중, 신민호      | 32(4)    | 2007      | 267-287 |
| EU와의 FTA 체결협상에 따른 범유럽 원산지규정 운용의 특징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남풍우, 안재진      | 32(5)    | 2007      | 1-24    |
| 한-EU FTA의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 정인교, 조정란      | 32(4)    | 2007      | 223-245 |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박종석, 황건하      | 33(2)    | 2007      | 77-92   |
| 한·미 FTA 이후 대일수입전환                                   | 권영민           | 33(2)    | 2008      | 185-210 |
|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한·미 상호 국방조달 MOU 추진 방향           | 유규열           | 33(3)    | 2008      | 1-24    |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김연숙              | 33(3)    | 2008      | 239-256 |
| 한·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이제현, 김기영         | 33(3)    | 2008      | 159-184 |
| 한·미 FTA와 한국의 FDI 유치전략                                 | 정진섭, 분취차         | 33(5)    | 2008      | 185-216 |
| 한·중·일 FTA 전략의 수립                                      | 정상희, 황기식,<br>김현정 | 34 (3)   | 2008      | 59-83   |
| 미국 관세심사의 기업내부통제시스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송선욱              | 34(1)    | 2009      | 33-55   |
|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 김세영, 안병민,<br>최명식 | 34(2)    | 2009      | 1-28    |
| 수입 농산물의 관세탈루에 관한 실증연구                                 | 송희영, 태응렬         | 34(3)    | 2009      | 1-22    |
| 한국 제약산업의 한·미 FTA 대응 전략                                | 박양섭              | 34(3)    | 2009      | 79-101  |
| 한·중 교역패턴의 변화와 관세인하효과                                  | 김진섭, 이정세         | 34(4)    | 2009      | 279-306 |
|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 고찰                               | 정재완              | 35(1)    | 2009      | 153-170 |
|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연구          | 조정란              | 35(2)    | 2010      | 253-272 |
| 퍼지의사결정 방법론을 이용한 한미·한중 FTA가 산업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비교         | 안경애, 이해춘         | 35(5)    | 2010      | 49-81   |
| 한·일 FTA의 국내적 제약요인 분석과 새로운 대일 협상 전략                    | 안세영, 김정근         | 35(5)    | 2010      | 1-24    |
|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 박종찬, 박상길         | 35(5)    | 2010      | 25-54   |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 박형래, 장유식         | 36(1)    | 2010      | 129-157 |
| 한국-EU FTA 체결에 따른 대구자동차 부품산업 효과 분석                     | 변재웅              | 36(1)    | 2011      | 349-372 |
| 한-EU FTA의 돼지 삼겹살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이용기, 이동명         | 36(2)    | 2011      | 25-47   |
| ASEAN 주요 국가의 통관중심적 전자무역 동향분석                          | 정재우, 이길남,<br>박호용 | 36(3)    | 2011      | 317-352 |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 조미진, 안경애         | 36(3)    | 2011      | 83-105  |
|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나도성, 윤영호         | 36(4)    | 2011      | 23-51   |
| 우리나라 다변적 FTA체결을 활용한 MICE산업 중 무역전 시산업(E)의 국제화 수준 제고 방안 | 윤기관              | 36(5)    | 2011      | 187-214 |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용근, 안창달         | 37(2)    | 2011      | 171-196 |
|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 박현희              | 37(3)    | 2012      | 335-357 |
| 한·중 FTA 체결을 대비한 농산물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고찰                 | 정재승, 조교생,<br>유승제 | 37(4)    | 2012      | 49-67   |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우리나라 FTA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표준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윤영호, 나도성      | 37(4)    | 2012      | 259-319 |
| 한-칠레 FTA의 무역효과 분석   | 민혁기, 정재화      | 37(5)    | 2012      | 97-113  |
|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동물, 축산물 수출입검역제도의 체계화 방안 연구                                    | 김석철           | 37(5)    | 2012      | 431-456 |
| 한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조미진, 송백훈      | 37(5)    | 2012      | 301-325 |
| 한·중 관세환급 제도와 수출촉진에 관한 비교연구  | 손계성, 최창환      | 38(2)    | 2012      | 321-345 |
|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의 영향과 평가   | 박현희           | 38(2)    | 2013      | 159-178 |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   | 이상호, 김충실      | 38(2)    | 2013      | 97-114  |
|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윤영호, 나도성      | 38(3)    | 2013      | 295-319 |
| FTA가 전북지역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수이, 한민, 손종철  | 38(5)    | 2013      | 1-29    |
| 한·중 FTA의 한국 개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비선형연립방정식의 동태적 CGE 모델-                        | 안영철           | 38(5)    | 2013      | 1-25    |
| 한국소비자의 FTA 발효국 제품에 관한 구매효과 분석   | 이제홍           | 38(5)    | 2013      | 437-457 |
|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0;- 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              | 임목삼           | 39(2)    | 2013      | 479-497 |
| 한·중 FTA 투자분야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 게임이론의 활용 -   | 허형도, 허난이      | 39(3)    | 2014      | 289-308 |
|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 조미진           | 39(4)    | 2014      | 207-233 |
| TPP(한·일 FTA)가 한·일 자동차 교역에 미칠 영향 분석  | 조정란           | 39(4)    | 2014      | 221-241 |
| 상해 자유무역지역(FTZ)의 특성이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 시장 환경과 자유무역협정(FTA)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원용, 정진섭, 이민재 | 39(4)    | 2014      | 149-176 |
|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분석   | 박명섭, 조미진, 이병문 | 39(5)    | 2014      | 59-85   |
| FTA 체결효과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강다연, 전영서      | 39(5)    | 2014      | 21-41   |
| 관세행정 위험관리시스템 사례 비교 연구 -러시아·벨로루시·카자흐스탄 경제통합체-                                  | 신이리나, 정홍주     | 40(2)    | 2014      | 301-328 |
| 한국의 FTA 체결전략 상 농수산물부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진홍구           | 40(2)    | 2015      | 161-189 |
| 한·미 FTA 섬유류 협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 이석동, 이춘수      | 40(3)    | 2015      | 71-91   |
| 일본-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송백훈           | 40(3)    | 2015      | 73-89   |
| FTA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최병권, 이병문      | 40(4)    | 2015      | 203-224 |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한국 FTA 협정의 환경분야 특성 분석과 적용                                  | 정복영,오근엽       | 40(5)    | 2015      | 311-330 |
|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 검증성과 간의 관계                | 최창범           | 40(5)    | 2015      | 361-378 |
|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제품원산지와 광고모델 활용 전략                           | 판반형,김근배       | 40(5)    | 2015      | 401-422 |
| NAFTA와 미국의 자동차 산업내무역                                       | 권영민,신대철       | 41(1)    | 2015      | 25-49   |
| 한·중 각국이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규정 비교 연구                             | 김형철,김희철,라공우   | 41(2)    | 2016      | 139-158 |
| 국제 R&D 경쟁과 최적관세  | 이동생,이종민       | 41(2)    | 2016      | 29-60   |
|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박명섭,한낙현,김은채   | 41(3)    | 2016      | 123-157 |
|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 강유덕,고보민       | 41(3)    | 2016      | 1-25    |
|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분석: 국가 및 산업별 특성을 중심으로                 | 권미옥,나희량       | 41(4)    | 2016      | 63-107  |
| 원산지 이미지에 따라 원산지 요인들이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창봉,현화정       | 41(5)    | 2016      | 131-155 |
| EU와 한-EU FTA에 대한 대학생 인식과 상관성에 대한 실증연구                      | 이재득           | 41(5)    | 2016      | 255-283 |
|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         | 임목삼,임성철       | 41(5)    | 2016      | 89-111  |
| 무역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화장품 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연구 - 한중 FTA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용진,김영진,이덕희   | 41(5)    | 2016      | 63-87   |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 송윤아,강지원,이재은   | 41(5)    | 2016      | 41-62   |
| 우리나라 주요 FTA협정의 수산물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 한·미 및 유럽권 협정을 중심으로   | 박진우,박명섭,최두    | 42(1)    | 2016      | 213-233 |
|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 김덕중,김희호       | 42(1)    | 2017      | 69-97   |
| 원산지표시 제도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허윤석,윤호성,이용완   | 42(2)    | 2017      | 99-124  |
| 한·중 FTA체제에서 중국의 원산지검증제도와 원산지불인정사례 연구                       | 배명렬,심상렬       | 42(4)    | 2017      | 297-318 |
|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 김종혁,허산형,김석철   | 42(5)    | 2017      | 93-114  |
| 중소기업 수출에서 FTA 정보학습 연관분석                                    | 조연성           | 42(6)    | 2017      | 93-112  |
|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연구: 수산물을 중심으로                       | 허윤석,박명섭,박진우   | 43(1)    | 2017      | 155-176 |

| Theses Title  | Author's Name | Vol. No. | Published |         |
|---|---------------|----------|-----------|---------|
|   |               |          | Year      | PP      |
| 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오토 자동차 부품수입을 중심으로            | 김규림, 나희량      | 43(1)    | 2018      | 109-130 |
| 한아세안 FTA에서 한국 기업거래상대방의 수입통관 분쟁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배은주, 박세운, 김희호 | 43(3)    | 2018      | 153-176 |
| FTA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검증사례 연구                 | 권순국           | 43(5)    | 2018      | 199-218 |
| 복합원산지제품 평가에 관한 실증적 비교연구: 제품구입 경로, 제품카테고리, 소비자 특성을 중심으로      | 손제영, 강인원      | 43(6)    | 2018      | 67-91   |
| 대미 수산물 수출에 관한 한-미 FTA 효과 및 수출결정요인 분석                        | 김규민, 김도훈      | 43(6)    | 2018      | 71-92   |
| 한국 간이세율의 적정 인허수준 추정에 관한 연구: 여행자 휴대품 통관을 중심으로                | 김희권, 김희호      | 43(6)    | 2018      | 215-237 |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활용과 시사점: 중국 화장품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윤성욱, 이한다라     | 44(1)    | 2018      | 113-138 |
| 개항기 조선정부의 관세자주권 회복 시도                                       | 윤광운           | 44(1)    | 2019      | 301-319 |
| FTA 원산지 누적이 경제적 효과: 베트남 섬유산업 부가가치수출을 중심으로                   | 조정란, 유정호, 임병호 | 44(2)    | 2019      | 207-220 |
| 소비자보호를 위한 한국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진병진, 임병호      | 44(2)    | 2019      | 143-157 |
|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내생적 결정과 함의: 근시안적인 정부에 대한 로비모형을 중심으로   | 우한성, 황석준, 황욱  | 44(3)    | 2019      | 203-219 |
| 아세안의 보호무역조치 연구: 비관세조치 및 특정무역현안을 중심으로                        | 나희량           | 44(3)    | 2019      | 43-72   |
| 다자간 FTA의 형성이 역내 수출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박재관, 김희호      | 44(3)    | 2019      | 1-14    |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2차 부품기업의 FTA 활용효과                               | 김희호, 조주은      | 44(5)    | 2019      | 253-269 |
| 우리나라 주요 FTA의 철강재 원산지 규정 협상에 대한 비교 분석                        | 이승택           | 45(1)    | 2019      | 127-142 |
| 비관세장벽의 수출효과 &#8211; 한국을 중심으로                                | 황운중           | 45(1)    | 2020      | 101-118 |
| 해외로비와 원산지규정 사후검증제도의 엄격성에 대한 정치경제학                           | 황석준, 황욱, 이진권  | 45(2)    | 2020      | 155-171 |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전자자원관리시스템(ERP)의 연동 수준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황수한, 조혁수      | 45(4)    | 2020      | 1-17    |
| 한-캐나다 FTA 수출효과 분석   | 염경윤           | 45(4)    | 2020      | 1-24    |
| FTA 뉴스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 분석: 한-미 FTA 사건 연구를 중심으로                 | 안소영, 박기백      | 32(4)    | 2020      | 171-194 |